

朝鮮時代 濟州島 住民의 異文化理解가 濟州教育에 미친 影響* - 濟州島 住民의 漂流記錄을 中心으로

양진건 (제주대학교)

〈국문요약〉

본 연구는 조선시대 제주도 주민이 남긴 표류기록을 중심으로 표류를 통한 이문화이해가 당대의 제주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민들은 표류를 통해 타국의 문화를 접촉하게 되었고, 관련 기록을 남기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습득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지역의 교육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표류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제주도민들의 이문화접촉 경험은 더욱 축적되었고 그것은 정보와 지혜로 승화되는 계기를 얻어 이문화이해가 이루어짐으로써 제주교육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제주도의 기술교육이나 언어교육 나아가 근대의 여성교육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표류, 표류기록, 이문화접촉, 이문화이해, 제주교육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9-327-B00534)

I. 서론

전통시대의 일반주민들이 이문화(異文化)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막혀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조선시대는 오랜 기간의 해금정책(海禁政策)으로 해외이동 및 무역을 철저히 금하였다. 더욱이 제주도는 조선후기까지 이루어진 출륙억제정책(出陸抑制政策)¹⁾으로 해외는 물론 육지부와의 교류마저 지극히 공식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엄두를 내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러나 이런 현실에서도 제주도민들은 전혀 예기치 않게 이문화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곤 했는데 표류(漂流)가 바로 그 대표적인 경우였다. 일반적으로 표류란 범선항해의 전근대시기에 발생한 불가피한 해난사고를 의미한다. 특히 해로를 통해서만 타 지역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도서(島嶼)지역과 해상활동이 활발한 연해지구에서는 표류가 빈번했다. 이러한 연유로 제주도는 조선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표류다발지역이었다.

표류는 비록 해난사고이기는 했지만 타국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이런 기회를 통해 표류민들은 개인의 의식의 변화는 물론 나아가 그들의 공동체에도 적잖은 변화의 자극을 줄 수 있었다. 그것은 표류민들이 타국문화를 경험하는 수준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다양한 표류기록(漂流記錄)들을 남겼고, 관련된 새로운 이야기들을 유포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조선시대에는 표류민들이 일단 귀국을 하면 그 사정을 왕에게 보고하기 위해 홍문관(弘文館), 승정원(承政院) 등에서 구술을 받아 표류내용을 기록하였다. 그 방식 외에는 타국의 사정을 잘 아는 학자에게 명하거나, 글을 아는 본인에게 직접 기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표류기록들은 학술적인 측면에서 당대의 이문화이해의 전말을 밝히는 유익한 자료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큰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표류에 관한 연구는 크게 역사와 문학 분야에 치우쳐 있었다. 역사분야에서는 표류민의 신분, 유형, 상업 활동, 이국에서의 문화체험, 송환체계 및 선박상황 나아가 위장표류에 대해 연구(민덕기 외, 2000; 원종민, 2008)가 되었다. 문학 분야에서는 주로 표류기록을 중심으로 그 문학적 요소를 분석하는 연구(오관석, 1984; 윤치부, 1992)가 진행되었다. 반면 표류를 교육과 접목시킨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²⁾

따라서 본고에서는 제주도민들이 남긴 표류기록들을 중심으로 이문화접촉과 이문화이해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거기에 나타난 제주도민들의 이문화이해가 당대의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을 밝

1) 梁鎭健, 『濟州教育行政史』, 濟州文化, 2001, 139-146쪽.

2) 김은종의 석사논문은 최부 표해록의 교육적 활용방안을 다루어 제목에서 보면 교육에 접목시킨듯 보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문학적 접근인 국문학연구라고 해야 할 것이다.(김은종, 「금남표해록의 교육적 활용방안」,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1-7쪽 참조)

해보고자 한다. 그러나 표류기록에 교육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고, 그 교육적 영향 또한 추론적이어서 당대 제주교육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추론만으로도 그 변화의 예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미흡하나마 지방교육사의 맥을 이어나가기 위한 시도를 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제주교육사 형성의 새로운 동인을 규명함으로써 교육사연구의 새 지평을 확보하고자 한다. 제주도민은 아니지만 성종대의 최부(崔溥)나 이섬(李滢), 순조대의 최두찬(崔斗燦)처럼 표류되었던 제주도 관료³⁾들이 개인적으로 기록을 남기기도 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단 제외시켰다.

II. 본 론

1. 표류기록의 종류

출륙억제정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도 제주도민들은 생업 때문에 그리고 관료들과 진상품을 호송하기 위해 출항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바다를 끼고 사는 제주도민들의 입장에서 생업을 위한 출항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로지 풍력에만 의지했던 출항이었기 때문에 일기 불순으로 뜻하지 않게 표류를 당하는 일이 잦았다.

성종19년(1488), 제주도 화북을 출발하였던 최부(崔溥)가 표류하다가 136일 만에 귀국한 후에 남긴 기록인 『표해록(漂海錄)』에는 당시의 제주도 사정을 다음처럼 전하고 있다.

제주는 멀리 큰 바다 가운데 있고 물길 구백여리의 파도가 다른 바다보다 더욱 흉포합니다. 진공선과 상선들이 이어져 끊어지지 않지만 표류하여 침몰되는 일이 열에 대여섯이 되어, 제주사람은 앞 항해에 죽지 않으면 필시 뒷항해에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주 땅에 남자의 무덤이 아주 적고 마을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세 곱절 많습니다.⁴⁾

여기서 “표류하여 침몰되는 일이 열에 대여섯이 되어”라는 표현처럼 제주도는 표류다발지역이었다. 그들은 일단 표류가 되면 광범위한 지역을 떠돌아 다녔다. 그들의 표류지역은 태평양 해류의 특징에 따라 당연히 중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일 수밖에 없었다.

3) 최부 『漂海錄』, 최斗燦 『乘槎錄』 등이 그 경우다.

4) 최溥, 『漂海錄』, 『燕行錄選集』, “我州邈在大海中 水路九百餘里 波濤視諸海 尤爲洶暴 貢船商舶 絡繹不絕 漂沒沈溺 十居五六 州人不死於前 則必死於後 故境中男墳最少 閭閻之間 女多三倍於男”

	표류민	시기	표류기 명칭	표류기 소재	표류지	비고
1	金杯廻 일행	1470년 (성종1년)		朝鮮王朝實錄	중국	승정원
2	金非衣 일행	1477년 (성종8년)		朝鮮王朝實錄	유구	홍문관
3	槎廻伊 일행	1499년 (연산군5년)		朝鮮王朝實錄	일본	예조
4	金紀孫 일행	1534년 (중종29년)		朝鮮王朝實錄	중국	승정원
5	姜衍恭 일행	1539년 (중종34년)		朝鮮王朝實錄	일본	
6	朴孫 일행	1546년 (명종원년)		魚叔權 『稗官雜記』	유구	주서 윤결 기록
7	高商英 일행	1687년 (숙종13년)	金大璜漂流海日錄	李益泰, 『知瀛錄』	안남	고상영 일행 표류내용수록
8	高商英 일행	1727년 (영조3년)		鄭東愈, 『書永編』	안남	역관 이제담 기록
9	高商英 등 濟州人 14명	1731년 (영조7년)	高商英의 安南國漂流記 등 15편	鄭運經, 『耽羅聞見錄』	안남 1 대만 2 일본 9 유구 1	고상영 일행 표류내용수록
10	張漢喆	1771년 (영조47년)	漂海錄		유구	개인의 경험 직접 기록
11	李邦翼 일행	1796년 (정조20년)	南遊錄	『星州李氏世蹟』	중국	박지원기록
12	金光顯 일행	1828년 (순조28년)	耽羅漂海錄	朴思浩 『心田稿』	중국	
13	濟州人 26명	1831년 (순조31년)	濟州漂人問答記	金景善, 『燕轄直指』	유구	
14	金耆良	1857년 (철종8년)		『濟州啓錄』	홍콩, 중국	일행 4명중 홀로 생존

표류민들이 귀국을 하면 왕에게 보고하기 위해 조정에서는 승정원이나 홍문관을 통해 그 내용을 기록하였다. 때로는 왕이 표류민들을 직접 불러 표류 연유나 견문을 묻고 보상하기도 하였다. 그런가하면 글을 아는 지식인들에게는 본인이 직접 그 경험을 기록하게 하였다.

이러한 표류기록의 자취는 일찍이 탐라국의 건국신화, 혹은 『삼국사기』, 『삼국유사』에서도 보이지만 제주도가 하나의 지방행정구역으로 정착되기 시작한 고려시기 문헌에도 빈번히 나타

난다.⁵⁾ 그러나 본격적인 것은 조선시대부터였다.

조선시대 제주도의 일반주민들이 남긴 표류기록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도 일반주민의 표류기록은 전체 14건이며 이 가운데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5건이고 『제주계록』에 실린 것이 1건 그리고 본인이 직접 남긴 기록이 1건이다. 나머지 7건은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것으로 이 가운데 3건은 같은 표류인을 대상으로 남겨진 것이다.

2. 표류기록에 나타난 이문화접촉의 내용

1) 표류기록의 배경

제주도 주민 김배회 등 7명⁶⁾ 성종1년(1470) 8월 제주도에서 진상물을 서울까지 수송하고서 되돌아오는 길에 큰바람을 만나 표류하다가 13일 만에 절강성에 도착하였다. 명나라 관리들은 조선 사람임을 확인하고 이들을 구호하였고 성절사가 돌아오는 편에 귀국하여 승정원에서 구술을 받아 기록을 만들었다.

김비의 등 8명⁷⁾ 성종 8년(1477) 2월 진상품 감귤을 싣고 출항하였지만 바람을 잘못 만나 14일 동안 표류하다가 3명만 살아남고 유구에 도착하였는데 2년 4개월 만에 일본을 거쳐 살아 돌아올 수 있었다. 성종은 홍문관에 명하여 김비의 등이 말한 것을 적어 올리게 하였고 표류하여 유구국의 본섬까지 가는 과정과 각 섬에서의 풍속 그리고 일본을 경유하면서 본 것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제주에 사는 내섬시 노복 정희이는⁸⁾ 연산군 5년(1499) 바람을 잘못 만나 일본에 표류하였는데 그곳에서 1년 넘게 머물다가 돌아왔다. 일본 호족 평순치(平順治)의 집에서 얻어먹으며 보고들은 내용을 듣고 예조에서 기록하였다.

중종29년(1534) 2월 김기손 등 12명⁹⁾ 진상물을 싣고 출륙하다가 바람을 잘못 만나 중국 회안부에 표류하였다가 남경과 북경을 거쳐 같은 해 11월에 고국으로 돌아왔다. 이들은 글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으므로 표류경위와 경로를 자세히 말할 수 없었으며 다만 만주(萬珠)라

5) 김봉욱, 『제주통사』, 제주: 세립, 2001, 46쪽.

6) 『成宗實錄』 卷9, 2年 1月 8日 辛巳, “승정원에서 김배회 등의 표류한 사건의 정상을 심문하고서 아뢰다.”

7) 『成宗實錄』 卷105, 10年 6月 10日 乙未, “제주도 표류민 金非衣 등으로부터 유구 풍속과 일본국 사정을 듣다.”

8) 『燕山君日記』 卷40, 7年 1月 30日 己卯, “예조에서 제주도 내섬시의 종 樞廻伊가 일본에 표류하여 보고 겪은 일을 아뢰다.”

9) 『中宗實錄』 卷78, 29年 11月 24日 丙戌, “정원에서 표류인들에게 남경에서 본 물건 등에 대해 물어서 아뢰다.”

는 노복이 남경에서 겪은 일을 승정원에서 기록하여 임금께 올렸다.

중종34년(1539년) 10월 강연공¹⁰⁾ 등 19명이 진상품 감귤을 신고 출항하였다가 일본으로 표류하였다. 5일째 되는 날 밤에 오도 근처에 이르러 겨우 살아났고 다음날 구조되어 원순정(源純定) 도주에 의해 구호를 받았다. 중종 35년(1540) 7월에 큰 배를 이용하여 일본인 25명이 강연공 등 19명을 호송하여 제주 조천포로 입항하였다. 당시 조선의 사정을 왜인들에게 알릴 우려 때문에 왜인과 강연공 등을 서울로 올려 보내 조사를 하였지만 결국 일본 호송인들은 제주에서 직접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명종대의 주서였던 윤결(尹潔)이 제주도민의 경험담을 토대로 지은¹¹⁾ 박손(朴孫) 일행의 기록¹²⁾과 고상영(高商英) 일행의 표류기도 있다. 고상영 일행의 표류기는 3가지가 전해지는데 가장 앞선 기록은 제주목사였던 이익태(李益泰)가 자신의 재임 시절을 기록한 『지영록(知瀛錄)』에 실린 「김대황표해일록(金大璜漂海日錄)」¹³⁾이다. 이 책에는 고상영 등 표류민을 태워 온 중국 상인 진건과 주한원 등을 심문한 내용까지 수록되어 있어 표류의 전말과 구조의 경과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숙종13년(1687) 9월 김대황을 비롯한 고상영 등 24명은 진상품 말을 신고 출항하였다가 표류하여 안남국 회안부에 도착하였다. 그곳 관청의 보호를 받다가 안남 국왕의 허락을 얻어 숙종14년(1688) 7월 쌀 6백포를 운임으로 지급할 약속을 하여 중국 상선을 얻어 타고 12월9일 서귀포에 상륙하였지만 지불능력이 없었으므로 조정에서 은으로 환산하여 주고 중국 상인들은 육로를 통해 북경으로 보내 주었다.

정동유(鄭東愈)가 지은 『주영편(書永編)』에도 영조 3년(1727) 역관 이제담이 제주에 머물면서 고상영과 만나 안남에 표류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있다.¹⁴⁾ 또 하나가 정운경(鄭運經)의 『탐라견문록(耽羅聞見錄)』인데 그는 영조7년(1731) 9월 제주목사로 부임하는 아버지 정필녕(鄭必寧)을 따라와 제주도민들을 관찰하여 기록으로 남겼다. 여기에는 안남(安南: 필리핀)이 1건, 대만이 2건, 일본이 9건, 유구(琉球: 오키나와)가 1건, 국내표류 1건이 실려 있다. 이렇게 14인의 표류기록과 그들의 견문 및 송환 과정 등이 모여 있어서 18세기 당시의 표류사 연구에 대단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나의 표류 사건에 대해 3가지 표류기록이 전하는 것은 매우 특이하다. 특히 정동유와 정운

10) 『中宗實錄』 卷93, 35年 9月 18日 丙午, “강연공 등의 표류자들과 그들을 인솔한 왜인들을 올라오게 하라고 이르다.”

11) 『明宗實錄』 卷3, 1年 2月 1日 戊子, “표류하여 유구에 갔던 박손 일행이 돌아와 그 풍속을 기록하다.”

12) 魚叔權, 『稗官雜記』.

13) 李益泰 著, 金益洙 譯, 『知瀛錄』, 濟州文化院, 1997.

14) 鄭東愈, 『書永編』.

경의 기록은 서로의 기록을 참고하지 않고 따로 제보를 받은 탓인지 같은 제보자에게서 얻은 것임에도 세부 묘사에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 이 표류 사건은 전혀 국교 관계가 없던 안남이 인도적 견지에서 중국 상선에 부탁하여 이들을 회송했고, 교류를 원하는 공문까지 보내왔으므로 당시에 크게 회자되었던 것이다. 영조대 장한철(張漢喆)의 『표해록』¹⁵⁾은 제주도민으로서는 유일하게 본인이 직접 남긴 기록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장한철은 영조47년(1771) 전시에 응시하기 위해 나가던 중 폭풍을 만나 유구국 호산도에 표류하였다. 그곳에서 왜구를 만나 고생을 한 뒤 안남 상선을 만나 일본으로 같이 가는데 멀리 한라산이 보이자 들뜬 나머지 큰소리로 떠들자 안남 사람들이 제주사람임을 알고서는 표류한 원래 배에 도로 이들을 내려놓고 떠나가 버렸다. 안남국 왕자가 제주에 표류하였을 때 이들을 죽인 일 때문에 제주사람들을 원수처럼 여겼던 것이다. 장한철 일행은 또다시 표류하여 전남 청산도에 표류하였지만 29명 중 8명만 남고 모두 죽었다. 그곳에서 며칠 머물다가 제주 상인의 배를 만나 일행은 귀향하고 장한철만은 서울로 가서 전시에 응시하였고, 표류기록을 직접 남겼다.

그 밖의 표류기록으로는 정조대 이방익(李邦翼)¹⁶⁾ 일행의 표류기와 순조대에 제주도민 26명의 표류경험을 기록한 「제주표인문답기(濟州漂人間答記)」¹⁷⁾도 있다. 이방익은 정조20년(1796년) 아버지를 뵙기 위해 다른 7명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다가 바람을 잘못 만나 중국 팽호로 표류하였는데 대만, 복건, 절강, 산둥, 북경 등을 거쳐 다음해 정조21년(1797) 윤6월 서울에 되돌아왔다. 정조는 박지원(朴趾源)으로 하여금 이방익의 경험을 기록하게 하였는데 이 내용이 성주이씨세적(星主李氏世蹟)에 『남유록(南遊錄)』으로 실려 있다. 이방익의 아버지 이광빈도 무과에 응시하려 가다가 일본 나가사키에 표류한 적이 있었다.

근대에 들어서는 1857년(철종8년) 김기량(金耆良)에 대한 표류기록¹⁸⁾이 있는데 그는 4명의 일행과 서귀진에서 모슬포로 돌아가다가 폭풍우를 만나 표류하게 된다. 김기량 혼자 영국 선박에 구출되어 홍콩의 파리와방전교회 극동대표부에 보내졌고 거기서 조선인 신학생을 만나게 되어 세례를 받게 된다.¹⁹⁾

2) 표류기록의 내용

표류기록들은 제주도 주민들의 이문화 접촉과정과 그로 인한 의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런데

15) 張漢喆著, 金志弘譯, 『漂海錄』, 서울, 지만지, 2009.

16) 星州李氏世蹟, 金益洙 譯, 『南遊錄』, 濟州文化院, 1999.

17) 金景善, 『燕轅直指』.

18) 『濟州啓錄』, 咸豐7年 5月14日條.

19) 달레, 『韓國天主教會史』, 下, 279-280쪽, 베르너 주교의 1858년 8월 14일자 서한 및 290쪽, 다블뤼 주교의 1858년 11월 서한. 1874.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이문화이해의 중요한 과정이다. 표류민들은 귀국 후 본인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유포, 이해, 촉진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제주도과 같은 폐쇄된 공간에서 이러한 역할은 당대의 교육에도 분명 적잖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제주도 주민들의 이문화에 대한 입장은 표류지 사회의 내부적 구조에 대해서까지 인식, 분석하지는 못하고 표피적인 정보들만을 보고하고 있는 한계를 노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독특한 경험은 당대의 이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소중한 자료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이문화접촉은 중국, 일본, 유구, 안남,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김비의 일행의 표류기에는 유구의 여러 섬을 거치면서 그곳의 풍속에 대해 자세히 전하고 있다. 여러 섬의 형승, 의복 및 장식, 언어, 음식, 주거, 무기 및 도구, 농사 및 농작물, 과일 및 채소, 짐승 및 곤충, 장례 등에 대해서 일일이 기록하고 있다. 특히 병란으로 싸우는 장면까지 다양하고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다.

김비의 유구왕이 일본인들이 성질이 나빠 무시송환을 기대할 수 없다고 중국으로의 전송을 권유했다고 보고하고 있다.²⁰⁾ 이는 당시 유구의 대일관(對日觀)을 반영한 것이다. 김비의 일행의 기록은 현 오키나와현의 고등학교 역사교재에도 상세히 옮겨 적고 있을 만큼 당시의 유구를 파악하는데 가장 구체적인 사료로 평가 이용되고 있다.²¹⁾ 이 같은 정보를 제공한 대가인지 조선정부는 김비의 일행에게 2년간의 역사(役使) 면제와 반년치의 녹료(祿料) 및 제주도로 귀향하는 비용으로 과해량(過海糧)을 지급하고 있다.²²⁾

명종원년(1546) 유구에서 돌아온 박손 일행의 보고에는 유구의 관복이 중국과 같다는가 특정 유구인을 남경에 유학시켜 중국의 학문과 어학을 익히게 하여 중용한다든가 망궐례(望闕禮)를 행하여 중국에 대한 사대를 지성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²³⁾ 이러한 정보는 조선으로 하여금 유구를 교린대상으로서 지속적으로 설정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탐라문견록』에 있는 1687년 고상영 일행의 안남국 표류기에는 안남의 풍토민속, 토양의 비옥, 기후의 온난, 남천여귀(男賤女貴), 물산풍요를 기록하였다. 뿐만 아니라 안남 물소가 주인을 알아보고, 원숭이가 사람의 뜻을 잘 따르고, 큰 코끼리가 코로 소리를 내며, 공작새의 털로 직물을 짜는 등 지극히 상세한 부분 묘사까지 빼놓지 않았다.²⁴⁾ 비록 짤막하고 간결한 서술이지만

20) 『成宗實錄』 卷105, 10年 6月 10日 乙未

21) 新城俊昭, 『高等學校 琉球, 沖繩史』(沖繩縣歷史教育研究會, 1994)의 「朝鮮人漂流民か見た15世紀末の琉球」와 沖繩縣 教育委員會編, 『高校生のための沖繩の歴史』(沖繩縣高等學校社會科教育研究會, 1994)의 「朝鮮人漂流民の見た15世紀末の先島」(46~50쪽)에서 상세히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22) 『成宗實錄』 卷105, 10年 6月 10日 乙未, “제주도 표류인 김비의 등으로부터 유구국 풍속과 일본국 사정을 듣다.”; 20日 乙巳, “표류인 김비의 등 3인을 제주로 송환케 하다.”

23) 『明宗實錄』 卷3, 1年 2月 1日 戊子, 박손 일행의 표류에 관한 기록 참조.

자연스럽고 생동감이 넘쳐 17세기 하반기 안남의 민간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제주도 주민들은 표착지에서 현지인 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과도 접촉하였다. 18세기 당시 일본에는 나가사키를 개항하여 여러 나라들과 교역을 하고 있었는데 나가사키에는 남만인(南蠻人)²⁵⁾들의 거처인 남만관도 있었다. 『탐라문견록』의 1723년 이기득 일행과 김시위 일행의 일본 오도 표류기에서 남만인과 남만국 사정, 나가사키의 남만관에 대해 잘 소개되어 있다. 통사의 소개로 만난 남만인들의 모습을 소상히 적고 있는데 눈이 깊고 코가 높고 가늘고 길고 눈동자는 노랗고 몸체가 웅장하다고 하였다. 머리에는 붉은 담요를 들렀고 북방 오랑캐와 비슷한 모자를 쓰고 있다고 했다. 서양인들의 비슷한 면모와 독특한 누린내도 전하고 있다.²⁶⁾

뿐만 아니라 남만이 제주도를 치려고 일본에 군대를 청해 길잡이로 삼고자 했지만 일본이 허락하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던 사실도 알게 된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제주도 주민들은 조선에서는 결코 체험하기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 폐쇄적이고 한정된 의식이 변화되는 계기를 갖게 된다.

아울러 타국인들이 조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 『탐라문견록』의 1698년 강두추, 고수경 일행의 일본 옥구도 표류기를 보면 조선에 대한 일본인들의 비판적인 견해가 보인다.

‘큰 밥주발에 늦수저로 밥을 퍼서 먹으니 탐욕스러운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조선은 외관(外官)이 3년마다 한 번씩 교체되니, 빈한한 양만이 요행히 100리 고을의 수령이 되면 온통 자손의 먹고살 도리에만 마음을 쏟아 과외로 징수하여 거두어 절제함이 없습니다. 이런 법이 좋습니까?’²⁷⁾

조선 사람들이 탐욕스런 마음이 많고, 법이 좋지 않다는 것을 통사로부터 듣게 된다. 또 부산에서 서울 남대문까지 붉은 줄로 길을 그려 안팎에 관원의 숫자를 적어놓은 지도도 보게 된다. 또한 통사와 장기를 두면서 조선이 특하면 대국임을 내세우는 버릇도 지적받게 된다. 이를 통해 조선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식을 이해하게 된다.

24) 정운경 著, 정민 譯, 『탐라문견록, 바다 밖의 넓은 세상』, 서울: 휴머니스트, 2008, 47-61쪽.

25) 16세기 이후 포르투갈, 네덜란드 등을 위시한 서양 세력이 동남아시아 일대를 장악하고 일본·중국 등지에 무역을 요구하기 시작하자 이들 서양인에게도 남만이라는 호칭이 사용되었다. 일본은 이들과의 무역을 남만무역이라 부르며 적극적인 접촉을 시도하였다. 이로 인해 화승총이 일본에 도입되었으며, 기독교를 비롯한 서양 문물이 일본에 전해졌는데 일본은 이들 문물에 남만이라는 접두어를 사용하여 구분하였다.

26) 정운경 같은 책, 99-101쪽.

27) 정운경 같은 책, 85쪽.

3. 이문화이해가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

일본인 나카하마 만지로(中浜萬次郎, 1827~98)는 1841년 표류 중 미국 선박에 구조되어 선장의 양자가 되어 1843년 옥스퍼드학교, 1844년 바레트아카데미에서 영어, 수학, 측량, 항해술, 조선기술 등을 배우고 1851년 일본으로 귀국한다. 일본은 만지로의 영어, 조선지식에 주목하였고 그는 사쓰마번 서양학교에서 영어 강사는 물론, 일본과 서양식 절충 합선의 건조 지식도 빌려준다.

1853년 페리 제독의 내항으로 미국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던 차에 만지로는 막부의 명에 따라 군함조련소 교관이 된다. 이때 영어회화책을 집필하고 항해술서를 번역한다. 1860년 일미수호통상조약 비준서를 교환을 위해 사절단 일원으로 미국으로 다시 갔고 메이지유신 후에는 지금의 동경대학인 개성학교의 교수로 임명되어 일본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남긴다.²⁸⁾

이렇게 표류경험이 당대의 교육에 미친 영향의 구체적인 예는 조선의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추론할 뿐이다. 그러나 그 추론이 그렇게 무리가 없는 이유는 정황적 증거가 그것을 웅변해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그러한 추론이 없이는 변방의 제주교육의 변화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 기술교육에 미친 영향

제주도 주민들은 이문화를 접속하면서 의식구조에 큰 변화를 겪는다. 이러한 변화는 당연히 귀국 후 제주사회의 여러 부문에 적잖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교육적인 측면에서 우선 기술교육의 영향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탐라문견록』의 1726년 김일남, 부차웅 일행의 유구국 표류기를 보면 중국 복건 포성현에서 배 만드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 있다.

10월 초 2일, 복건을 떠나 물길로 24일을 가서 포성현에 이르렀다. 강 한 곳을 보니 배를 만들기 위해 다리를 만들었다. 그 제도는 큰 배를 가로로 좁게 하여 강을 막고, 배 양 끝에 쇠못을 박아 큰 쇠줄 두 가닥으로 둘러 배의 아래 위를 꿰었다. 그리고 둥글게 둘러싸서 강의 양쪽 언덕에 잡아댔다. 배 위에는 긴 판자를 깔아서 길가는 나그네를 지나가게 했다. 혹 다른 배가 강물을 따라 오르내릴 때는 긴 판자를 치우고 양옆의 다리 배를 밀쳐서 한 줄기 길을 열어주었다.²⁹⁾

전통적으로 제주도는 조선 관련 기술교육이 매우 우수했다. 제주도는 탐라국 시절부터 신라는 물론 고구려나 백제와도 조공이나 해상교역을 통하여 긴밀한 관계를 맺었으며³⁰⁾ 삼국지(三國志)

28) 시바 료타로, 이길진 옮김 『료마가 간다』, 창해, 2002

29) 정운경 같은 책, 118쪽.

30) 『瀛洲誌』, 「至十五世孫厚清季三昆系 造船渡海 朝于新羅…至厚十二世孫聘 服事百濟」.

나 『후한서(後漢書)』에 “탐라인들은 배를 타고 한나라에 오가면서 장을 본다”³¹⁾고 하였듯이 중국은 물론이요 일본과도 해상교류가 빈번하였음을 미루어볼 때 동해와 서해 혹은 남해를 넘어 다닐 수 있는 수준의 조선과 항해와 관련한 기술교육이 매우 활발했었음을 짐작케 한다.

고려시대에 들어서 원나라는 제주도로 하여금 일본 정벌에 필요한 선박들을 건조케 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선박 수리장으로 만들기도 하여 조선관계의 기술교육 또한 활발하였다. 현종 2년(1012) 제주도가 큰 배 2척을 고려조정에 공헌한 사실³²⁾이나 문종 대에 들어 송나라와의 교역을 위한 상선을 만들기 위해 인적, 물적 제공 장소로 제주도가 선정되었던³³⁾ 것만을 보더라도 조선기술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 때문에 제주도 표류민들이 이국의 배 만드는 과정을 보며 여러 가지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었고 결국 제주도의 기술교육을 촉진시키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탐라문견록』의 1723년 이기득 일행의 일본 오도 표류기에서는 남만인들의 배에 대한 소개도 기록하고 있다.

한낮에 배가 있는 곳에 가서 보니, 강의 너비가 10리쯤 되는데 큰 배 두 척이 강을 가로막고 왔다. 배는 아래 위 2층이었고, 비단 돛을 가로로 여섯 장을 길었다. 한 면으로 된 천기는 장대만 15장이 넘었으니 그 배의 장려함을 알 수 있겠다.³⁴⁾

배에 대한 정보만이 아니라 농업에 관련된 정보도 기록하고 있다. 특히 항주에서 수차(水車)로 쌀 찧는 물방아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기도 하다.

들보 둘레 허리 부분에는 절구 공이 12개가 부착되어 있고, 들보의 양끝에는 버팀목을 어지럽게 꿰어놓았다. 버팀목은 길이가 4~5자인데, 20여 개나 되었다. 버팀목 끝에 나무로 만든 표주박을 달아놓고는 이것을 물에 담가 거꾸로 흐르는 물결을 길어 올린다. 물의 형세가 내뿜으며 차올리므로 나무 표주박이 떨어지면서 차례로 물을 길어 차례로 얹는다. 이에 방아의 들보는 빙빙 돌면서 뒤집어져 잠시도 멈추지 않는다. 게다가 누각 가운데는 돌을 깔고 절구 네 개를 파서 공이를 받아 쌀을 찧는다. 잠깐 만에 10여 석의 쌀을 정미했다.³⁵⁾

수차에 대한 관심은 1488년 제주도에서 귀향 중에 풍랑을 만나 남중국에 표류하였던 최부가 중국에서 수차를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을 직접 보고 『표해록』에 기록한 것도 있다. 그런데 조선

31) 『三國志』 卷30, 魏書30, 東夷傳 第30

32) 『高麗史』 卷4, 顯宗 3年 8月 壬寅條.

33) 『高麗史』 世家 文宗 12年 8月條, 「王欲於耽羅及靈巖 伐材造大船 將通於宋」.

34) 정운경 앞 책, 94쪽.

35) 정운경 같은 책, 94쪽.

에 크게 가뭄이 들자 최부는 표류 경험에서 익힌 수차 제조법을 가르치게 되었고 아직 수차를 이용한 농업에 대해 무지했던 당시에는 혁신적인 농업기술의 발전을 꾀한 것이다.

조선왕조에 있어서 농업은 국가의 터전이자 존속의 기반으로 위정당국은 항상 농업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표명해 왔다.³⁶⁾ 이러한 현실에서 표류를 통해 수차를 이용한 농업기술의 소개, 보급은 당대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일이었다.

이러한 수차 관련 정보는 제주도 주민의 표류기록에도 엿보인다. 명종 1년에 제주도민 박손 일행도 유구에 표류되었다가 쇄환(刷還)되어 돌아오면서 중국에 이르렀을 때 복건도(福建道)에서 수차 제도를 보고 익혀 왔다고 하여 보급시키자³⁷⁾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경험이야말로 당대 제주도의 기술교육에도 영향을 주는 사건이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곡식을 찧는 동력으로는 말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수차를 보급하자는 제안은 그 자체만으로도 문화적 충격의 정도를 반영한 예라고 할 수 있다.

2) 외국어교육에 미친 영향

그런가 하면 기술교육 못지않게 언어교육 문제도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통상적으로 교류를 하는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언어가 통하지만 방언이 심한 유구 같은 경우는 필담마저 불가능해지면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게 된다.

조선에 표도하는 유구나 여송인들이 있으면 조정에서는 의사소통문제로 골머리를 앓기 마련이었다. 제주도민들이 유구 언어들을 알고 있다는 좋은 예로 중종 25년(1530)의 기사에 표도인의 말을 통역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제주도민의 통역을 통해 표착한 여송인들에게 그곳에 표류했던 조선인, 중국 조공여부, 의복, 음식, 예의, 농사 등 풍속에 대해 자세히 물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표류를 통해 타국의 언어를 습득할 수 있었다는 말이며 그것은 곧 제주도의 외국어 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조선후기에 들어 역과(譯科)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씨족의 하나가 제주 고씨(濟州 高氏) 집안이다.³⁸⁾ 제주 고씨는 위와 같은 통역을 담당하는 역관(譯官)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집안에 역과합격자를 많이 배출하였다. 역관가문씨족이 역과합격자를 배출하였던 것은 조선후기의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이렇게 제주 고씨가 명문역관가문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훌륭한 표류 기록을 남긴 고상영(高商英)과 같은 고씨 집안사람들의 표류 경험과 결코 무관할 수 없다. 적어도 외국어와 통역의 필요성을 이 사람들만큼이나 실감한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다.

36) 李元浩, 『韓國技術教育史』, 서울: 文音社, 1991, 39쪽.

37) 『明宗實錄』 卷3, 1年 4月 23日 己酉, “표류하여 유구국에 갔던 박손 일행이 돌아와 그 풍속을 기록하다.”

38) 金泳謨, 『朝鮮支配層研究』, 서울: 一潮閣, 239쪽.

3) 일반교육에 미친 영향

표류기록에는 기술교육이나 언어교육 외에도 일반 교육에 대한 언급도 보인다. 교육에 대한 직접 진술로는 박손 일행의 표류기록에서 중국유학을 하던 유구 귀족 자제들의 교육실태가 등장한다.

경상(卿相)의 자제로서 연소한 자를 택하여 그들에게 은낭을 많이 싸 주어 바다를 건너 남경에 들어가 유학하면서 남북 양경(兩京)에 어음을 겸해 익히게 하고 그들의 학문이 성취되기를 기다려 배를 보내어 데리고 돌아온 다음 그들이 배운 바를 시험하여 능통한 자에게는 관직을 주고 능통하지 못한 자에게는 은낭을 도로 징수한다. 그러기 때문에 남경에 들어가 유학한 자는 자신의 학문이 성취되지 못함을 알면 감히 돌아오지 못한다.³⁹⁾

이러한 정보를 통해 당대의 제주도민들은 유구는 물론 중국의 교육 사정과 그들의 관계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유구의 귀족자제들이 중국에 유학을 하여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은 현재도 교육사적으로 유익한 정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유구가 당시 한자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정보의 공유가 가능하다는 발견은 제주도민들에게는 놀라운 사실이었다. 『탐라문견록』의 1726년 김일남과 부차웅의 유구국 표류기에 이런 상황이 잘 나타나 있다.

때마침 배에 『언해친자문』이 있어 꺼내서 보여주니 저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저들이 손으로 하늘 천자를 짚으며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우리는 우리 음으로 이를 말했다. 다른 글자를 짚으면 또 우리 음으로 불렀다. 이에 서로 돌아보며 큰 소리로 떠들며 기뻐하는 기색이 있었다. 말을 배운 뒤에 그 말을 생각하며 말했다. “중국의 음과 한가지다.”⁴⁰⁾

그런가하면 과거시험이나 관직 등에 관련된 내용도 표류기에 등장한다. 『탐라문견록』의 1729년 윤도성의 대만 표류기에는 표착지 도독이 윤도성 일행에게 “너희 나라에도 과거제도나 벼슬에 임용하는 규례가 있는가?”고 묻자 “대국과 전주어 한 몸인지라 이 같은 규례가 있다.”⁴¹⁾고 답하여 과거제도 관련 상황이 기술되어 있다.

관료들이 아닌 일반 제주도민들이 당대의 인재선발제도인 과거제도에 대해 알고 있었음은 놀라운 일이다. 그것은 제주도에도 과거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오는 경험 탓이다. 제주도민의 중앙관계진출은 문, 무과 등의 과시(科試)와 지방행정에의 참여로 가능하였는데 물론 태조3년(1394)

39) 『明宗實錄』 卷3, 1年 2月 1日 戊子, “표류하여 유구국에 갔던 박손 일행이 돌아와 그 풍속을 기록하다”

40) 정운경, 앞의 책, 106쪽

41) 정운경 앞의 책, 71쪽.

도평의사사가 제주학교에 관한 상언(上言)을 통해 10세 이상의 토관 자제들을 학교에 입학시켜 인재로 키운 후 국시에 응할 수 있도록⁴²⁾ 배려하긴 했지만 과시는 제주도가 처한 지리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그 실현이 거의 불가능 하였다.

실사 이를 극복하고 중앙에 간다 하더라도 재력불비에 따른 장기간의 체류가 곤란함으로 과시를 통한 입사는 극히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어사를 파견해 외방별시(外方別試)를 실행한다거나 전라도 문과초시 1액을 제주에 할당⁴³⁾하거나 또는 소과초시(儒生陞補試)를 제주관위에 위임함으로써 지리적 조건에 기인한 제주도민의 불이익을 다소 완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외방별시가 특별한 일이 있을 시에만 거행되고 승보시는 문관수령⁴⁴⁾이 있어야만 가능했기 때문에 과거를 통한 관계진출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었다.

4) 근대교육에 미친 영향

1857년 2월 풍랑을 만나 표류하던 김기량은 귀국 후 천주교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영향은 후일 1909년 10월 제주도최초의 여성교육기관 가톨릭계 신성여학교(晨星女學校)가 설립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⁴⁵⁾

1901년에 제주도에 부임한 프랑스인 라쿠르(Lacroux) 신부는 신자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성영회(聖嬰會)를 설치한다. 이 성영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 1902년 설립된 ‘제주도 여학당’이다. 이 여학당은 1903년 10월 라쿠르 신부가 뮈텔(Mutel) 주교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제주도 여학당의 여교장이 사직을 하고 제 집 주인과 결혼할 것입니다.”⁴⁶⁾ 라고 한데서도 알 수 있다.

여학당은 제주목 중면 제주성내에 있는 삼도리 지역에 있었으며 선교를 목적으로 세워진, 교리문답을 위한 소규모 학당이였다. 학생수는 대략 30명 정도였으며 기초적인 한문과 한글을 가르쳤다. 이 여학당을 기반으로 라쿠르 신부는 근대식 사립여학교인 신성여학교를 설립하게

42) 『太祖實錄』 卷5, 3年3月 丙寅, 「都評議使司上言…乞自今置教授官 土官子弟十歲以上 皆令入學 養成其材 許赴國試…上從之」.

43) 外方別試는 非定期科試로서 文, 武科만 있고 單試로 及落을 결정, 直赴殿試 자격을 주었는데 濟州는 仁祖1年에 設試되었다. 『仁祖實錄』 卷3, 1年 閏10月 戊子, 참조. 한편 定期試인 文科(大科) 初試1額은 濟州 경우 文官 牧使(또는 判官)와 教授가 試取하였다. 『肅宗實錄』 卷35, 27年 6月 丙寅, 참조.

44) 陞補試는 小科初試에 해당하는 것으로 開城, 水原, 濟州에서 시행되었다. 濟州는 仁祖 17年에 실시되었고 考試官 3員이 매년 2명을 試取해 直赴會試도록 하였다. 후일 考試官, 試取生의 數는 여러 차례의 변화를 겪는다. 『增補文獻備考』 下, 卷188, 選舉考, 참조.

45) 濟州特別自治道教育廳, 『近·現代 濟州教育100年史』, 濟州教育博物館, 2011, 33쪽.

46) 제주선교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한국교회사연구소, 제주복음전래100년사 자료집 제3집, 『초기분당과 성직자들의 서한(1)』, 천주교제주교구, 1997, p.175. 여기서 “La supérieure du couvent de Che-Ju”를 “제주도 여학교의 여교장”이라고 번역했는데 이를 “제주도의 여학당 담당자” 또는 “책임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황으로 보아 무방할 듯 하다.

된다.

당대 제주도가 매우 급속하게 가톨릭을 수용할 수 있었고 그로인해 신축교안(辛丑教案)이라는 내부적 갈등까지 겪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김기량의 표류 영향을 무시하고는 결코 얘기할 수 없다.⁴⁷⁾ 가톨릭계의 근대학교가 제주도에 세워질 수 있었던 동기와 수순은 더욱이 김기량의 표류의 영향과 결코 무관 할 수 없다. 이는 표류민의 경험이 이 문화접촉을 통한 의식과 당대의 교육의 변화를 주도했던 제주도의 대표적 사례이다.

Ⅲ. 결 론

풍력에 의해서만 항해가 가능했던 전통시대에 있어 표류는 타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였다. 사행(使行)이 정치적인 외교관계를 유지시켜줌으로써 지배계층의 타국에 대한 인식을 도모했다면 국가 간의 무역을 통해 중인계층의 타국에 대한 인식을 경제적인 차원에서 도모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한 맥락에서 표류는 하층민들의 타국에 대한 인식 즉 이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류들은 중국이나 일본, 유구 등은 물론 멀리 안남까지도 경험할 수 있었다. 특히 이 가운데 안남의 경우는 조선과 어떤 관계도 확립되지 않았던 나라였던 까닭에 표류를 통한 접촉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밖에 없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표류를 통해 표류국가의 문화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서양의 문화까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다. 당대 지리적으로 폐쇄된 지역인 제주도에 있어서 이와 같은 주민들의 경험은 더욱 값진 것이라 하겠다.

표류민들은 이문화를 접촉하면서 어떤 경험과 정보 그리고 어떤 지혜를 습득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그들이 남긴 표류기록에 비교적 소상하게 담겨있다. 이러한 경험과 정보, 지혜는 당대의 제주교육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제주도의 기술교육이나 외국어교육은 물론 근대 여성교육에 까지도 큰 영향을 주었다. 결국 제주도 표류민들의 경험한 이문화는 제주교육의 역사를 다양하게 변화시키고 촉진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47) 天主教 濟州教區, 『濟州天主教會 100年史』, 1997, 58-71.쪽

참고문헌

- 『高麗史』.
『瀛洲誌』.
『燕行錄選集』.
『三國志』.
『太祖實錄』.
『成宗實錄』.
『燕山君日記』.
『仁祖實錄』.
『中宗實錄』.
『明宗實錄』.
『增補文獻備考』 下.
金景善, 『燕轅直指』.
魚叔權, 『稗官雜記』.
鄭東愈, 『書永編』.
달레(Dallet, C. C.), 『韓國天主教會史(Histoire de l'Eglise de Coree)』
김봉옥, 제주통사, 제주: 세립, 2001.
金泳謨, 『朝鮮支配層研究』, 서울: 一潮閣, 1991
李元浩, 『韓國技術教育史』, 서울: 文音社, 1991.
李益泰 著, 金益洙 譯, 『知瀛錄』, 濟州文化院, 1997.
星州李氏世蹟, 金益洙 譯, 『南遊錄』, 濟州文化院, 1999.
新城俊昭, 『高等學校 琉球, 沖繩史』, 沖繩縣高等學校社會科教育研究會, 1994.
梁鎮健, 『濟州教育行政史』, 濟州文化, 2001.
정운경 著, 정 민 譯, 『탐라문견록, 바다 밖의 넓은 세상』, 서울: 휴머니스트, 2008.
濟州特別自治道教育廳, 『近·現代 濟州教育100年史』, 濟州教育博物館, 2011.
濟州教育史編纂委員會, 『濟州教育史』, 濟州道教育委員會, 1979.
濟州教育通史編纂委員會, 『濟州教育通史』, 濟州道教育委員會, 1974.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耽羅文化』(1~10號), 濟州大學校, 1982~90.
濟州島研究會, 『濟州島研究』(1~6輯), 서울: 大學社, 1984~90.

《Abstract》

The Study on the Influence of Intercultural Understanding on Jeju Education in Joseon Period: Focus on the Record of Local Castaways

Yang, Jinge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Joseon period, adrift on the sea provided a chance to understand the culture abroad. Diplomatic trip broadened the understanding of the ruling class on foreign countries, and so did cross-board trade to the middle class. Adrift, on the other hand, influenced lower class's perception toward foreign countries and promoted their intercultural understanding. A drift often took Jeju residents to China, Japan, the kingdom of Ryukyu, the present Okinawa, and Annam, the present Vietnam. Local people's accidental trip to Annam by drift is very meaningful because they built up the relationship between Joseon and Annam for the first time. What is more notable is that Jeju residents not only understood the culture of those foreign countries they traveled, but also the western culture imported by those countries. Due to its function as the place of exile, Jeju closed down its doors to the outside world. Thus, adrift provided a rare and precious chance to experience different cultures abroad. The information on their intercultural experience by drift is carefully written in local castaways' records. Their experience and the knowledges learned had a tremendous influence on Jeju education. In other words, the intercultural experience of Jeju castaways played a decisive role in developing the local education.

Key words : drift, castaways' record, intercultural contact, intercultural experience, intercultural understanding, Jeju education

논문투고일 : 2011. 11. 04. / 심사일 : 2011. 11. 21. / 심사완료일 : 2011. 12. 14.